



어느 교사의 푸념

이 원 창 | 진주고 진학상담 교사

“여보세요?”

“그래 ○○이구나.”

“어쩐 일이세요?”

“내가 지금 오후 3시 버스를 탔으니 아마 7시쯤 남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겠지. 조금 후에 만나자.”

“에, 선생님.”

내가 교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첫 학교에서 3년 간 담임을 맡았던 제자와의 휴대폰 통화 내용이다.

나의 교직 생활의 첫 발은 고향이 아닌 경상북도의 어느 시골 학교에서 시작했다. 중·고 병설학교 이면서 고등학교 한 학년이 두 반인, 6학급의 소규모 학교였다. 첫 교직 생활이고 또 제대로 담임교사의 역할과 임무도 모르는 햇병아리 교사이지만 ‘꿈’과 ‘정열’로 학생들을 대할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학생들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가정방문이었다. 오늘날은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 사항, 교육적 환경 여하, 학생의 가정에서의 위치, 통학상의 문제 등 가정 환경 조사 명목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했었다. 자전거를 타고 토요일은 이 마을, 일요일은 저 마을

을 찾아 다녔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자전거에 일할 수 있는 작업복을 한 벌 챙겨 다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논밭에서 농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고향에서 툼툼이 익혀 온 변변치 못한 일삼씨로 학부모님을 도와주면서 그분들의 사는 이야기, 자녀들의 생활 습관 등에 관해서 들어야 했다. 때로는 논두렁에서 쉴 때는 학부모님이 따라 주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전거 위에는 어느 누가 없어 놓았는지도 모르는 그 곳의 특산물인 꽃감, 마늘, 고추 등 고향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정말 도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성들이 올려져 있었다.

계속해서 학부모들의 도움을 해 오던 2학년 담임 시절의 어느 토요일! 종례를 끝내자 한 녀석이 “선생님 오늘은 어느 마을로 가세요?” 하길래,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전거 가는 곳으로 가지 뭐.” 하였다. “그러지 말고 선생님, 오늘은 몇 시 버스를 타고 어느 마을에 내리시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그 녀석의 말대로 마을에 도착하니 오토바이를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신고 어느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가니 남학생들이 경운기를 몰고 모여들었다. 늦가을이라 곧 어두워져 이상하다 싶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저녁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았 습니다.” 그러고는 대나무에 숨을 뭉쳐서 햇불을 만드 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불치기’ 를 하기 시 작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 해 보는 놀이였다. 얼 마 후 또 그 마을의 여학생들이 모두 모여 밥을 짓 고 남학생들이 장만해 주는 민물생선 매운탕을 끓 여 내놓았다. 그 때 마을 어르신들이 술을 가지고 오시더니 “선생님, 오늘 저녁은 모든 것을 잊고 한 잔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는 어려움

에서 벗어나 마음껏 쉬십시오.” 라고 하였다. 나 역시 지금껏 느껴 왔 던 불만과 실망, 고뇌들이 봄 눈 녹듯이 녹아 버렸다. 정 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소풍은 전교 학생이 항상 함께 갔는데 자신 의 마을 쪽으로 가면 그 쪽 마을에 사는 여학생 들이 전날 저녁 다 모여 내일 선생님께 대접할 음 식을 장만하면서 즐거워했 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 체 육대회의 그들의 단합된 모습,

큰 홍수가 난 뒤 불행을 당한 친구 의 집에 가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뛰어 다니며 에태우던 그들의 순수함 등. 나는 그곳 에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이 3학년이 되고 난 후 대학 진학에 힘쓰게 되었다. 진학 공부를 위하여 1, 2학년 때도 조기 등 교를 시켜 열심히 하였지만, 3학년 때는 모두 아침 7시까지 등교하게 하여 그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두 명의 학생에게 수학과 영어를 지도하게 하였다.

선생님이 아닌 친구에게 배우는 것이 신기하고 재 미있었는지 가르치는 학생과 배우는 학생 모두 열 심히 했다. 그 열정으로 교실은 항상 열기로 달아올 랐다. 그 두 학생 중에 한 녀석은 당당히 시골 고등 학교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서울대에 합격하여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 때를 생각하면 항상 내 가슴은 따뜻해져 온다. 소위 말하는 사제 동행.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가서 학

“

그 때를 생각하면 항상 내 가슴은 따뜻해져 온다. 소위 말하는 사제 동행.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가서 학생을 깨워 공부하게 했던 일, 보잘 것 없는 학교 사택에 방을 비워 장거리 통학생들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공부시키던 일 선생님은 학생 집의 경조사를 챙겨 주고 가정에서는 학교 선생님을 챙겨 주었다. 선생님과 부모님과 학생과의 가족과 같은 만남은 어느 한 녀석도 열길로 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

나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가서 학생을 깨워 공부하게 했던 일, 보잘 것 없는 학교 사택에 방을 비워 장거리 통학생 들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공부시키던 일. 난 지 금도 그 때를 잊지 못 한다. 선생님은 학생 집의 경조사를 챙겨 주고 가정에서는 학교 선생님을 챙겨 주었 다. 선생님과 부모님과 학생과의 가족과 같은 만남은 어느 한 녀석도 열 길로 새는 것을 허락하지 않

았다. 그들을 졸업시키는 자리에 서 나는 약속하였다. 너희들이 결혼 할 때 이 선생님을 초청하면 나는 지구 끝이 라도 달려가겠다고. 나는 그들과 이 약속을 지켰다. 그들의 초청은 시골구석에서도, 부산, 서울의 대도 시에서도 이루어졌는데 나는 단 한번도 빠지지 않 고 참석했다. 그리고 결혼 후 그들의 사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있다. 아직도 나는 그 때의 학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고향 경남 진주로 떠나는 지 15년이 지난 오

늘에도.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이들과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귀다툼, 학부모들로부터의 끊임없는 불평, 매스컴으로부터의 신랄한 비판 등으로 선생의 정신 자세는 희박해지고 기력은 쇠잔해지며 성격마저도 변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학생을 불신하고, 교장은 교사를 불신하고, 교육위원들은 교장을 불신하고, 학부모는 교사와 자녀를, 자녀는 부모와 교사를 불신한다. 불신하는 사회를 억지로 통합하자니 상부는 상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규율과 규칙을 만들어 감옥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불신으로 인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부정직하고 무기력해진 데다가 책임감마저도 없어졌다. 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이러한 현상은 당국의 절대적인 책임이라고 본다.

불신하는 교육 현실로 빚어진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 저하이다. 언젠가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을 위한 수학, 영어 등 기초 교과 강좌를 개설하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지금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소리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굳이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을 직접 대하는 교사들, 특히 국어 교사인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글을 읽지 않는다. 기껏 읽는다는 게 선생님의 눈을 피해 가며 일본 만화나 판타지 소설만 탐닉하고 있다. 어느 학부모의 애타는 전화, "선생님, 내일 우리 애 학교 가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 주세요." 어머니 말씀이 판타지 소설을 보지 못하게 하니 불을 끈 채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 소설을 읽는다면서 하소연하던 전화였다. 입시 백여 일을 남겨 둔 고 3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이었다. 이효석의 '베밀꽃 필 무

렵'에 주인공들의 호칭이 조선달, 허생원 등으로 표현되니 이 소설이 조선시대의 소설이라고 서슴지 않고 답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좌절감과 슬픔을 느낀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다. 불신하는 세상에 미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인터넷 게임, TV 시청 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창시절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 1때부터 인터넷 게임에 빠져 학교에 와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다시 학교 길에 PC방에 들러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의 감성은 메말라 가고 그들의 지적 능력은 한없이 추락하는 것이다. 단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이 전부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교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셋째, 쾌락에 대한 탐닉이다. 현재의 처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학교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그 강도는 나로 심해져 가고 있다. 그들은 이야기한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나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칠 뿐이다.' 교육에 희망이 없다면 이미 교육은 없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후배 교사가 집에 찾아왔다. 그는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부장을 하다가 올해 읍 지역 종합 고등학교에 3학년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 교직 경력이 15년이나 되는 베테랑 교사다. 그의 이야기 중에서 후배가 근무하는 학교의 실업계 3학년들 중 거의 절반이 수시 모집에 합격했는데 이 교사가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 하는 소리가 그들의 영어 실력이 중 1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

“

정기국회 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용이라며
공문에 엉터리 사실을 보고하는 그것을 믿고
교육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의 한심한 위정자들에게 제발 교육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감, 교장들의 소리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는데 과연 그들을 대학교수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지 걱정이 앞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 민족이 국가의 21세기를 이끌어갈 이 나라 동량들의 모습이고, 지적 수준이다.

정말 일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뜻 있는 교사들은 모이면 걱정이 태산이고 한숨을 절로 내뿜는다. 학생들의 수준이 정상적이지 못한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수준이 이렇게 된 원인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정부 당국 아니 위정자들이 제발 이 나라 교육의 현실을 좀 똑바로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 달라고 부르짖고 싶다. 정기국회 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용이라며 공문에 엉터리 사실을 보고하는 그것을 믿고 교육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의 한심한 위정자들에게 제발 교육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감, 교장들의 소리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우리 교육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나는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곳에서 나는 어느 누구도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훌륭한 기술을 익힌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조성된 가스실, 교육받은 의사들의 의해 질식되어 죽어 간 어린이들, 훈련된 간호사들의 의해 살해된 유아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총을 맞고 불타 죽은 부인과 어린이어들. 나는 이 모든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학생들을 인간이 되도록 도와 주자는 것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교육받은 괴물들이나 아이히만과 같은 살인귀를 배출해 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읽기, 쓰기, 수학들은 다 중요한 학습 과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더 인간답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때에만 그것들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닌 괴물이나 살인귀를 배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계를 양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민박**